투자전략 | 2024.8.16

경제 한눈에보는상상인자산전략

7월 미국 CPI 리뷰: 무난한 서브

Analyst 김현성 | 경제
02-3779-3517
hs.kim@sangsanginib.com

QR코드로 간편하게
상상인증권
투자전략팀 채널

모기지 금리 하락, 주거비 완화에 긍정적

7월 미국 CPI는 헤드라인(0.2% MoM, 2.9% YoY)과 코어(0.2% MoM, 3.2% YoY) 모두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였다. 특히 헤드라인 CPI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%대에 진입하였다. PPI와 함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지지하는 대목이다. 다만 근원 CPI의 전년대비 상승률 3.2%에 대한 주거비 기여도가 2.3%p(전체의 71%)를 기록 중인데, 8월 1째주의 모기지 금리 급락이 동월 주거비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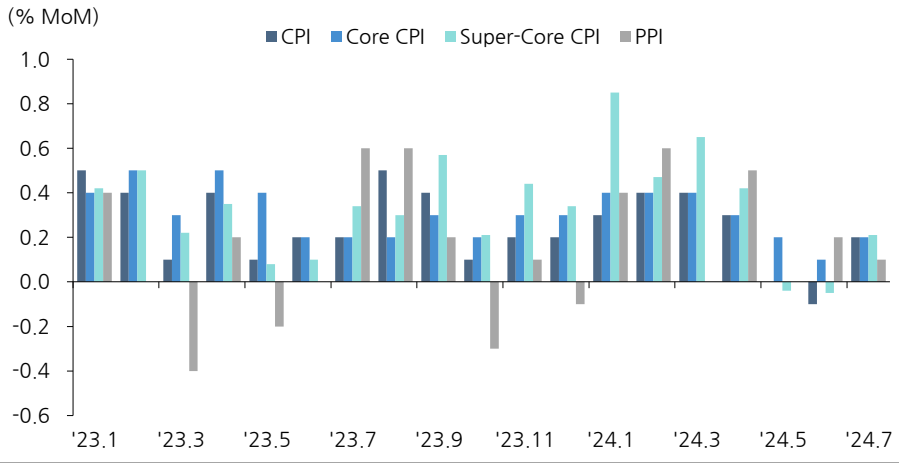
노동 수급 여건의 개선, 물가 하락세 지지

고용 냉각 또한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중이다. 노동 초과수요가 올해 1월 262만 명에서 7월 102만 명까지 축소되면서 임금 하방 압력이 높아졌는데, 이에 4%대를 횡보하던 임금상승률은 6~7월 간 3.6%까지 오름폭이 축소되었다. 구체적으로 제조업(4.9%→4.4%)과 건설업(4.8%→4.3%)의 하락폭 확대 속에서 서비스업(3.5%→3.4%)은 3% 초반을 목전에 두고 있다. 실업률 쇼크와 같은 고용 냉각의 주요 동인이 노동수요 위축 또는 노동공급 증가 어느 측면이더라도 물가 하락세를 지지하겠다.

지표 간 노이즈에도 연착륙 전망은 유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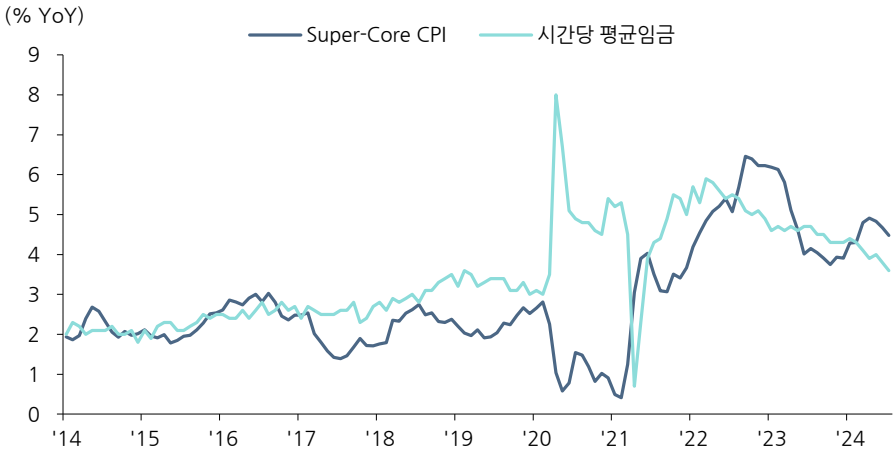
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물가에 대한 상이한 영향을 보였다. 소매판매의 경우 전월대비 1.0% 증가하며 예상치 0.4%를 크게 웃돌았는데,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소비를 견인하였다. 반면 산업생산은 제조업 부진 속에서 전월대비 0.6% 감소함에 따라 올해 1월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.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 연은 향후 3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. 클리블랜드 연은은 8월 헤드라인 CPI 상승률을 2.6% 수준으로 추정 중이다. 실물지표의 부조화에 경기 판단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디스인플레이션과 실질금리 상승이 지속되며 연착륙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.

그림 1. 미국 CPI, PP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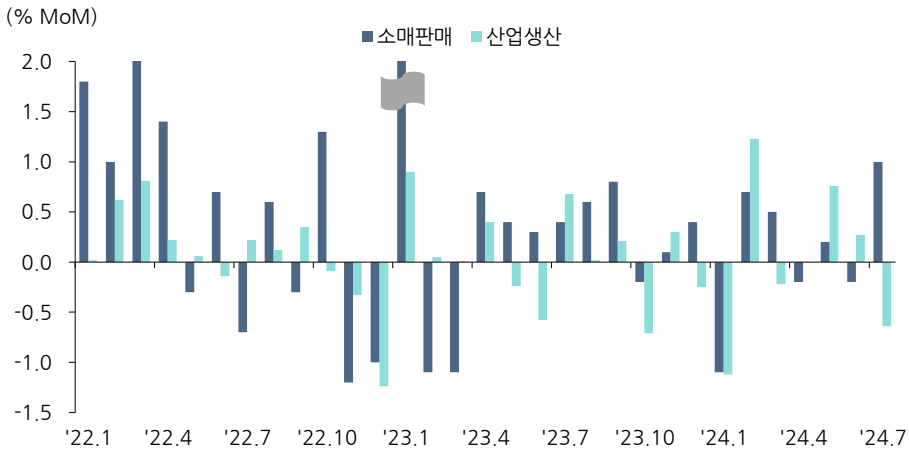
자료: Refinitiv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2. 미국 Super-Core CPI, 임금상승률



자료: Refinitiv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 3. 미국 소매판매, 산업생산



자료: Refinitiv,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현성)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